축하하다

[동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북녘에서는 새해에
어떤 인사를 나눌까요?

세배를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올해에도 성한 몸으로 편히 앉아계십시오.”, “아버지, 어머니, 새해에도 몸건강하십시오.”, “형님, 새해를 축하합니다.”, “새해의 첫 세배를 받아주세요.”등 인사말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배, 아동문학, 문학예술종합출판사》(북)

“새해를 축하합니다”는 북녘에서 널리 쓰는 새해 인사 표현입니다. 실제로 북녘에서는 이 표현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보다 더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세배를 할 때 남녘에서는
“오래오래 사세요”, “만수무강하세요”라고 하죠.
북녘에서는 세배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할까요?

“ ”

새해를 축하합니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팔짱

[명사]

남녘과 북녘의 국어사전에서
팔짱이라는 단어를 찾아 봤어요.
무엇이 다를까요?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1」두 손을 각각 다른 쪽 소매 속에 마주 넣거나, 두 팔을 마주 끼어 손을 두 겨드랑이 밑으로 각각 두는 일.	두팔을 몸앞으로 모두어 각각 량쪽 소매안에 마주 넣거나 또는 서로 덧걸어 량쪽겨드랑이에 끼는것.
「2」 “ ”	

북녘의 《조선말대사전》에는 《표준국어대사전》 ‘팔짱’의 뜻풀이 중 하나만 수록되어 있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팔짱’의 두 번째 뜻을 풀이해 보세요.

「2」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회의가 다시 열린다면 북녘의 편찬원들에게 이 뜻으로 ‘팔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지 꼭 물어봐야겠죠?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무지개

[명사]

빨주노초파남보

북녘에서는 일곱 빛깔 무지개 색을
어떻게 부를까요?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공중에 떠 있는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나타나는, 반원 모양의 일곱 빛깔의 줄. 흔히 비가 그친 뒤 태양의 반대쪽에서 나타난다. 보통 바깥쪽에서부터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 보라의 차례이다.	공기가운데 떠도는 수많은 물방울들에 반사되는 빛의 꺾임으로 말미암아 공중에 아름다운 일곱가지 빛갈이 층을 이루고 활등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

적록맹에 걸린 사람은 전체 스펙트르를 두 개의 기본 색조 즉 황색(스펙트르의 **적**-**등**-**황**-**록**색 부분을)과 청색(스펙트르의 **청**-**람**-**자**색 부분을)으로 감수한다.
《심리학, 교육도서출판사》(북)

남과 북에서 무지개 색을 이르는 말은?

남녘말

북녘말

무지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국어사전의 올림말 순서

남녘과 북녘의 국어사전은
올림말을 배열하는 순서가 달라요.
뒷장에서 단어를 배열해 보세요.

★ 겨레말큰사전에서는 남북공동편찬회의를 통해 사전에 수록할 올림말의 자모 배열 순서를 합의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조선말 대사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ㅇ
《겨레말 큰사전》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ㄲ ㄸ ㅃ ㅆ ㅉ

★ 아래 단어들을 각 사전의 배열 순서에 따라 적어 보세요.

가구, 아이, 가끔, 사랑, 하늘, 꼬마, 나라, 자랑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겨레말큰사전》

자음과 모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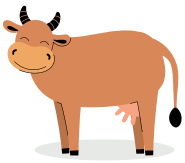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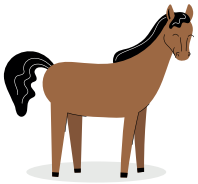
어흥

[부사]

남과 북은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가 다르답니다.
남녘에서는 **어흥**이라고 하지요.
북녘에서 호랑이는 어떻게 운다고 할까요?

따웅!하는 요란한 울부짖음소리가 나더니 휘익 바람을 일구며 황소만 한 호랑이가 나타나서 앞을 떡 막아섰습니다. 《산삼고개, 아동문학, 문학예술종합출판사》(북)

남녘에서는 호랑이가 **어흥** 운다고 하고
북녘에서는 **따웅** 운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동물의 울음소리는 어떨까요?

남	북
 소	
 말	
 오리	

어흥과 따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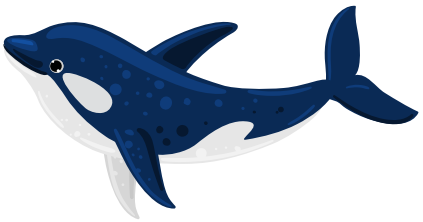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곱등어

[명사]

뒷장은 북녘의 국어사전에 실린
곱등어라는 단어의 풀이입니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조선말대사전》



곱등어 [-뜽-] [명]

○ ○ ○ 과에 속하는 바다젖먹이류의 한가지. 몸길이는 2m, 무게는 90kg정도이며 등은 검은색이고 배쪽은 흰색이다. 주로 무리를 지어 살며 5~6월에 새끼를 낳는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온대바다에 분포되여있다. 기름과 고기를 쓰며 동물교예에도 리용한다.

곱등어는 북녘에서 어떤 동물을 부르는 이름일까요?

돌고래와 곱등어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날짜

[명사]

날짜는

북녘에서 **날자**라고 쓰고

[날짜]라고 읽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날-짜[날짜]「명사」 「1」 일정한 일을 하는 데 걸리는 날의 수. 「2」 어느 날이라고 정한 날. 「3」 어느 해의 어느 달 며칠에 해당하는 그날.	날자[-짜][명] ① 어느날이라고 정한 날. ② (며칠인가의) 날의 수효. ③ 어느해 어느달의 몇일날인가에 해당하는 그날.

★ 남녘에서 **날짜**, **이빨**, **눈썹** 등 된소리 글자로 적는 일부 단어들을 북녘에서는 **날자**, **이발**, **눈섭**이라고 적습니다. 발음은 남북 모두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겨레말큰사전》에는 두 단어가 어떻게 수록될까요?

① 남북이 합의해서 한 단어만 싣는다.
② 남북에서 널리 쓰는 두 단어를 모두 싣는다.
③ 남북이 다르게 쓰므로 둘 다 싣지 않는다.
④ 두 단어를 모두 싣고 남북에서 쓰는 방식을 함께 설명한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햇빛

[명사]

햇빛은

북녘에서 **해빛**이라고 쓰고

[해삗]이라고 읽습니다.

남북의 표기법 중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 나는 것으로
두음법칙과 사이시옷 표기법이 있죠.
아래는 남북의 표기법이 다른 단어의 예시입니다.
차이의 유형에 맞도록 표를 채워 보세요.

나침반과 라침판　　바닷가와 바다가

컴퓨터와 콤퓨터　　등굣길과 등교길

급행열차와 급행렬차　　하룻강아지와 하루강아지

나비혜엄과 나비헤염　　능소화와 릉소화

두음법칙	사이시옷	기타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가위바위보

[명사]

북녘에서는 **가위바위보**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초성 힌트 ㄱ ㅇ ㅈ ㅁ

어떤 놀이든 술래를 정하려면 꼭 해야 하는 것이 **가위바위보**인데요. 가위바위보를 북녘에서는 **가위주먹, 돌가(위)보, 주먹가위**라고 해요.
또 **술래잡기**는 북녘에서 **까막눈 잡기,** **닭싸움**은 **무릎싸움**이라고 한답니다.
남북의 친구들이 만났을 때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볼까요?

가위바위보와 가위주먹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카스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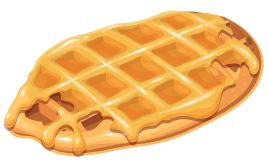
[명사]

카스텔라의 북녘말은
무엇일까요?
와플, **도넛**, **햄버거**의 북녘말도
함께 알아볼까요?

포르투갈어에서 온 외래어 **카스텔라**는 북녘에서는 **설기빵, 단설기**라고 해요.
북녘에서는 외래어나 한자어를 되도록 순우리말로 고쳐 쓰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북녘말에 해당하는 그림을 연결해 보세요.

설기빵 | 가락지빵 | 구운빵지짐 | 고기겹빵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카스텔라와 단설기